

논문 17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과 학생지도 방향

이 영 대*

1. 서론

최근 전문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문대학에서도 4년제 대학과 같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대학 졸업자중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사학위 취득과정에 진학하는 인원이 약5만여명(2006년)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그 동안 4년제 대학 편입, 학점은행제, 독학사학위제 등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해 왔다.

그런데 2008년부터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전문대학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심화교육을 받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은 2008학년도부터 전문학사학위과정 총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로는 100%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때 전문대학생들의 대학생활과 학생지도방안을 논의하여 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전문대학생에 대한 추적조사를 사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7월에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732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학교외 생활, 고민사항, 진로 관련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이들 자료중 전문대학생의 학교생활지도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정리하여 보았다.

2. 전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 평소 강의에 임하는 태도

전문대학생의 대학에서의 평소 태도를 살펴보면 성실한 출석, 성실한 과제수행, 강의시간은 집중하는 편인 반면 연습과 복습에 대하여는 충실한 측면보다는 그렇지 않은 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표 1〉 평소강의태도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성실한 출석	1.0	6.6	23.5	38.4	30.5	100.0
충실한 복습	3.6	29.3	49.2	15.6	2.3	100.0
예습충실	4.1	36.7	44.5	13.0	1.6	100.0
과제성실수행	0.8	6.3	26.7	45.3	20.8	100.0
강의시간 집중	1.0	5.1	37.3	47.6	9.0	100.0

□ 지도교수와의 면담

지도교수 면담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경우가 25.5%였으며, 1회는 19.4%, 2회 28.6%, 3회 13.9%, 4회 4.1%, 5회 4.4%, 6회 이상이 4.1%로 각각 나타나 1년에 2번 정도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지도교수 면담정도

(단위 : %)

구분	2년제	3년제	전체
없음	26.2	23.5	25.5
1회	18.6	21.9	19.4
2회	27.3	32.2	28.6
3회	14.9	10.9	13.9
4회	3.8	4.9	4.1
5회	4.6	3.8	4.4
6회 이상	4.6	2.7	4.1
계	100	100	100

□ 대학의 시설과 지원에 대한 의견

전문대학생들은 대학의 도서관, 강의실 등 공간, 도서관의 책과 자료, 학교시설, 컴퓨터 사용 환경 등 물리적 시설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학의 시설과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도서관, 강의실 등 공간	1.1	14.2	36.7	40.3	7.7	100.0
도서관의 책과 자료	2.2	16.8	37.0	37.1	6.9	100.0
학교시설	1.8	15.5	38.3	39.1	5.3	100.0
컴퓨터사용 환경	2.5	18.9	35.4	35.7	7.5	100.0

□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

전문대학생들은 전문대학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 학교운영에 있어서 만족정도가 높은 항목은 학업과 관련한 교수의 조언, 학과 선후배관계, 학교친구협력, 학교재학만족, 학교의 학생 고민 상담 정도이다.

반면 학교운영에 만족도 아니고 불만도 아닌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경우는 학교에 대한 만족, 학교의 진로정보제공, 학교운영에 학생의견반영, 학교교육과정 체계적 운영, 학교교육과정다양화, 학교성적평가공정, 학교의 기초학습능력부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등이다.

그러나 전문대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에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에 전문대학이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전혀 신경을 못쓴다가 11.4%, 신경을 못쓴다가 42.1%, 보통이 29.3%, 신경을 쓴다가 17.3%).

〈표 4〉 전문대학생의 학교생활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학업과 관련한 교수의 조언	1.0	6.3	42.8	42.8	7.1	100.0
학과선후배관계	2.5	18.9	35.4	35.7	7.5	100.0
학교친구협력	3.2	17.1	34.5	36.2	9.0	100.0
학교재학만족	1.0	7.5	33.6	48.4	9.6	100.0
학과에 대한 자랑	2.2	19.6	50.2	24.4	3.7	100.0
학교의 학생 고민 상담 정도	1.5	10.8	38.9	39.3	9.5	100.0
학교의 진로정보제공	3.4	27.8	46.5	19.4	2.9	100.0
학교운영에 학생의견반영	2.1	17.2	48.7	28.2	3.8	100.0
학교교육과정 체계적 운영	2.6	21.1	52.0	22.2	2.1	100.0
학교교육과정다양화	0.7	13.0	52.1	31.2	3.0	100.0
학교성적평가공정	3.0	21.4	50.4	23.0	2.2	100.0
학교의 기초학습능력부족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2.5	11.9	40.8	39.3	5.6	100.0
학생들이 수업내용 못 따라 가는 경우 대안제시	11.4	42.1	29.3	14.8	2.5	100.0

3. 전문대학생들의 학교외 생활

□ 여가(TV시청, 컴퓨터)

전문대학생들은 학교시간이외의 시간은 무엇을 하며 보낼까? TV시청은 평일에는 35.5%, 휴일에는 23.1%, 전체적으로 29.3%를 할애하고 있었으며, 컴퓨터는 평일에는 29.9%, 휴일에는 23.8%, 전체적으로 26.8%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전문대학생들은 상당시간을 컴퓨터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년제 대학의 95.1%, 3년제의 96.2%). 상대적으로 텔레비전시청시간은 낮은 편으로 텔레비전은 평일에는 1시간 정도와 휴일에는 2시간 정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여가시간에 하는 일

(단위 : %)

구분	평일	휴일	전체
TV시청	35.5	23.1	29.3
컴퓨터	29.9	23.8	26.8
독서	2.9	2.0	2.5
운동	4.4	4.0	4.2
영화	3.0	11.6	7.3
종교 활동	0.3	4.6	2.5
동아리	1.0	0.8	0.9
음주	2.6	6.1	4.4
쇼핑	1.9	4.1	3.0
아르바이트	6.8	6.8	6.8
가사	1.5	2.6	2.0
낮잠	1.1	4.2	2.7
휴식	6.1	4.5	5.3
기타	3.0	1.6	2.3
계	100	100	100

□ 컴퓨터 활용

컴퓨터 활용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채팅이나 메신저, 일반정보/뉴스검색, 개인홈페이지관리, 취미활동 등은 거의 매일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정도로 높은 참여활동을 보여주고 있었다.

학교공부나 학습정보,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취미활동은 상대적으로 보통 정도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동아리활동, 컴퓨터게임이나 성인용 사이트 검색은 상대적으로 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일부 있었다.

〈표 6〉 전문대학생의 컴퓨터 사용빈도

(단위 : %)

구분	2년제	3년제	전체
컴퓨터사용 비율	95.1	96.2	95.3

〈표 7〉 컴퓨터 활용정보

(단위 : %)

구분	전혀 안한다.	1주일에 1-2일	1주일에 3일 이상	매일 한다.	계
컴퓨터게임	41.3	24.8	18.5	15.4	100.0
채팅, 메신저	31.0	25.7	19.9	23.4	100.0
학교공부나 학습정보	29.8	45.2	17.8	7.2	100.0
전자우편	43.9	38.6	9.5	8.0	100.0
동아리활동	78.8	13.6	4.6	3.0	100.0
전자상거래	41.8	47.9	7.9	2.4	100.0
일반정보/뉴스검색	7.3	34.6	25.7	32.4	100.0
개인홈페이지관리	19.8	23.2	24.1	32.9	100.0
취미활동	11.9	38.0	29.7	20.4	100.0
성인용 사이트검색	91.4	8.2	0.4	0.0	100.0

□ 독서

전문대학생들의 독서에 할애하는 시간은 매우 적은 편이다. 자유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한 결과 독서를 주로 한다는 비율이 평일(2.9%)과 휴일(2.0%) 마찬가지로이다.

실제로 용돈의 출처에서도 도서구입에 지출하는 예산이 3.4%로 매우 적은 편이다. 반면 식사(41.1%), 의류구입(16.7%), 교통(16.7%), 문화(6.1%), 음주(6.0%), 오락(4.8%) 등은 독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4. 전문대학생의 고민

□ 전문대학생의 고민

전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서 고민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족)와의 갈등, 사귀는 사람(애인)의 문제, 친구관계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자신의 성격, 자신의 외모 등에는 약간의 고민이 있는 편이었으나 나머지 공부, 학교성적문제, 진학, 진로문제, 가정의 경제적 형편, 취업문제에 대하여는 고민이 매우 많은 편이었다.

〈표 8〉 전문대학생의 고민

(단위 : %)

구분	고민이 나 걱정이 없다	고민이 보통이다	고민이 심각하다	고민이 매우 심각하다	계
공부, 학교성적문제	22.8	51.9	21.6	3.7	100.0
진학, 진로문제	18.2	35.9	36.3	9.6	100.0
가정의 경제적 형편	27.3	55.1	15.7	1.9	100.0
부모(가족)와의 갈등	66.8	28.8	3.6	0.8	100.0
사귀는 사람(애인)의 문제	79.5	17.9	2.2	0.4	100.0
친구관계	72.7	25.5	1.4	0.4	100.0
자신의 성격문제	53.8	39.3	5.6	1.2	100.0
자신의 외모, 신체문제	41.5	48.1	8.7	1.6	100.0
취업문제	21.9	42.6	26.9	8.6	100.0

□ 경제적 문제

다음은 경제적 문제이다. 전문대학생들은 평균 214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하는데 그중 13.4%가 용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23.4만원의 용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등록금을 거의 부모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며(77.6%), 용자가 9.3%, 장학금이 3.1%, 자신이 스스로 해결이 6.4%로 나타나고 있었다.

2년제 전문대학생의 31.0%와 3년제의 21.3%가 휴학을 하고 있었다. 휴학을 하는 시기로 2학년 1학기가 2년제의 39.4%, 3년제의 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의 순서로 나타났다. 휴학을 하는 이유로 군 입대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은 2가지 이유로 나타났다. 등록금이 부담이 되어 휴학을 하는 학생이 2년제 대학의 14.1%, 3년제 대학의 17.9%, 전체적으로 14.8%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다.

〈표 9〉 전문대학생의 등록금, 용자, 생활비, 용돈

(단위 : %)

구분	등록금	용자금액	월평균 용돈	월평균 생활비
2년제	211.1	25.3	23.6	7.1
3년제	224.5	38.9	23.0	14.1
전체	214.5	28.7	23.4	8.9

〈표 10〉 용돈의 사용처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도서구입	3.4	5.3	4.4
식사	41.1	28.5	34.8
의류	16.7	20.8	18.7
건강	0.3	0.8	0.5
통신	2.9	4.5	3.7
문화	6.1	11.8	9.0
교통	16.7	13.6	15.1
음주	6.0	5.8	5.9
오락	4.8	5.8	5.3
저축	0.8	0.0	0.4
기타	1.2	1.8	1.5
계	100.0	100	100

〈표 11〉등록금 마련방법

(단위 : %)

구분	2년제	3년제	전체
가족	79.4	72.3	77.6
자신이 스스로	6.9	5.2	6.4
융자	7.7	13.9	9.3
장학금	3.0	3.5	3.1
기타	3.0	5.2	3.6
계	100	100	100

〈표 12〉전문대학생중 휴학경험비율

(단위 : %)

구분	2년제	3년제	전체
휴학경험비율	31	21.3	28.6

〈표 13〉휴학시기

(단위 : %)

구분	2년제	3년제	전체
1학년 1학기	4.8	5.2	4.9
1학년 2학기	23.8	20.7	23.2
2학년 1학기	39.4	41.4	39.8
2학년 2학기	32.0	32.8	32.1
계	100	100	100

〈표 14〉휴학이유

(단위 : %)

구분	2년제	3년제	전체
어학연수/해외여행	2.4	2.6	2.4
편입학	4.1	12.8	5.7
자격증	2.4	2.6	2.4
경제적 이유	14.1	17.9	14.8
취업	3.5	2.6	3.3
군 입대	61.8	38.5	57.4
건강	1.8	2.6	1.9
기타	10.0	20.5	12.0
계	100	100	100

전문대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으나(73.1%) 상당수는 집에서 통학 가능한 전문대학이 없어 집을 떠나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당국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겠다.

5. 전문대학생의 진로 실태

□ 희망진로

전문대학생들은 졸업 후 희망진로는 취업이 77.0%, 창업이 0.6%, 편입이 10.5%, 유학이 2.9%, 기타가 8.9%로 각각 나타났다.

〈표 15〉전문대학생의 졸업 후 희망진로

(단위 : %)

구분	취업	창업	편입	유학	기타	계
비율	77.0	0.6	10.5	2.9	8.9	100.0

□ 진로에 대한 고민 내용

전문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고민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2년제 대학생의 81.6%, 3년제 전문대학생의 82.5%, 전체적으로 81.8%가 진로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취업에 대한 고민의 정도도 78.1%나 되었다.

<표 16>전문대학생의 진로 문제의 고민 정도

(단위 : %)

구분	전혀 고민이 안 된다	보통정도 고민이 된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한 편이다	계
2년제	18.4	33.3	39.0	9.3	100.0
3년제	17.5	43.7	28.4	10.4	100.0
전체	18.2	35.9	36.3	9.6	100.0

□ 편입학

전문대학생의 희망 진로에서 전문대학생의 10.5%는 편입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 다른 조사에서 편입학에 대한 의견만 조사를 한 결과 80.2%는 편입학 의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두 조사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앞의 조사에서는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편입학을 동시에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졸업후 학사편입학을 하려는 경우가 12.2%, 졸업이전 다른 학교로 편입학이 5.9%, 같은 대학의 다른 학과로 편입이 1.7%로 각각 나타났다. 편입학시 66.7%가 동일 전공으로 편입학을 하려하고 있었으며, 편입학을 하려는 이유중 2년제 대학은 학력상승과 취업전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3년제 대학은 학력상승과 대학평판이 높게 나타났다.

<표 17>편입학 희망

(단위 : %)

구분	2년제	3년제	전체
같은 대학 다른 학과	2.1	0.6	1.7
졸업이전 다른 학교	6.6	3.9	5.9
학사편입	11.1	15.6	12.2
편입학 계획 없음	80.3	79.9	80.2
계	100	100	100

<표 18>전문대학생의 편입시 동일전공 비율

(단위 : %)

구분	2년제	3년제	전체
편입시 동일전공비율	63.8	74.3	66.7

<표 19>편입이유

(단위 : %)

구분	2년제	3년제	전체
취업전망	33.0	17.1	28.7
대학평판	10.6	25.7	14.7
학력상승	34.0	25.7	31.8
적성고려	16.0	20.0	17.1

주변의 권유	2.1	5.7	3.1
기타	4.3	5.7	4.7
계	100	100	100

□ 유학

전문대학에서도 학생들의 해외유학을 상당수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학생의 19.2%(2년제 20.8%, 3년제 14.2%)였으며 유학 가는 시기는 2006년 조사시점에 2008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북미주(25.9%), 유럽(26.6%), 일본(24.5%) 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유학을 하는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현재도 그 영향력이 크며 앞으로 더욱 영향력이 커지리라 예상되는 중국이 4.3%에 불과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많이 진출하여야 할 동남아시아는 0.7%에 불과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전문대학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20〉해외유학자 희망자 비율

(단위 : %)

구분	2년제	3년제	전체
해외유학희망자비율	20.8	14.2	19.2

〈표 21〉유학희망국가

(단위 : %)

구분	2년제	3년제	전체
북미주	23.0	38.5	25.9
유럽	25.7	19.2	24.5
일본	27.4	23.1	26.6
중국	5.3	0.0	4.3
동남아	0.9	0.0	0.7
호주/뉴질랜드	12.4	19.2	13.7
기타	5.3	0.0	4.3
계	100	100	100

□ 미래 희망직업 결정여부

전문대학생중 미래 어떤 직업을 가질지 결정한 경우가 52.7%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졸업을 목전에 둔 2년제 학생들의 51.4%가 미래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년제 대학생의 48.6%와 3년제 대학생의 65.0%가 2학년 1학기가 거의 끝난 마당에서도 희망직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 자신을 몰라서, 직업에 대하여 몰라서,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전문대학의 진로교육이 잘 안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직업을 결정한 경우 85.7%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높았다.

<표 22>미래직업결정여부와 희망직업과 전공일치여부

(단위 : %)

구분	2년제	3년제	전체
미래직업결정여부	48.6	65	52.7
희망직업과 전공일치여부	82.3	93.3	85.7

<표 23>미래 직업 미결정이유

(단위 : %)

구분	2년제	3년제	전체
적성과 흥미 없음	27.0	23.4	26.4
직업을 몰라	20.6	28.1	22.0
하고 싶은 것이 많아	27.8	34.4	29.0
자신감 부족	11.4	9.4	11.0
관심부족	1.8	0.0	1.4
기타	11.4	4.7	10.1
계	100	100	100

□ 전문대학에서 취업준비 활동 참가여부와 효과

전문대학의 취업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의 각 전문대학에 소속한 학생들중 정보검색만이 높게 나왔을 뿐 나머지 활동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즉 각종 검사, 면접 등의 영역에서 실제로 경험한 학생들보다 경험을 하여 보지 않은 학생이 많았다. 실제로 이들 취업 관련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중 취업정보검색, 일하고 싶은 기관방문 취업부탁, 적성흥미검사, 취업박람회참여,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봄 등은 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직업훈련, 자격증취득, 아는 사람에게 취업부탁, 면접훈련 등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24>전문대학생의 취업을 위한 활동의 참여정도

(단위 : %)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직업훈련	18.7	81.3	100.0
자격증취득	38.6	61.4	100.0
취업정보검색	51.9	48.1	100.0
아는 사람에게 취업부탁	33.2	66.8	100.0
일하고 싶은 기관방문 취업부탁	14.1	85.9	100.0
면접훈련	18.3	81.7	100.0
적성흥미검사	32.4	67.6	100.0
취업박람회참여	14.5	85.5	100.0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봄	12.1	87.9	100.0

〈표 25〉전문대학생의 취업을 위한 경험의 도움정도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직업훈련	4.5	6.8	22.7	43.2	22.7	100.0
자격증취득	2.2	2.2	24.7	51.6	19.4	100.0
취업정보검색	1.6	15.2	48.0	29.6	5.6	100.0
아는 사람에게 취업부탁	3.8	15.0	38.8	31.3	11.3	100.0
일하고 싶은 기관방문 취업부탁	3.0	24.2	48.5	21.2	3.0	100.0
면접훈련	4.5	15.9	29.5	43.2	6.8	100.0
적성흥미검사	1.3	19.2	41.0	34.6	3.8	100.0
취업박람회참여	2.9	17.1	40.0	40.0	0.0	100.0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봄	6.9	17.2	44.8	27.6	3.4	100.0

□ 전문대학생의 자신과 직업에 대하여 아는 정도

전문대학생중 자신의 적성에 대하여 아는 경우가 2년제 대학의 58.5%, 3년제 대학의 61.7%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미래 희망직업의 업무내용과 전망 및 보수에 대하여 잘 안다는 경우가 높은 편이었으나 직업정보를 대학에서 얻는 경우가 1순위 응답자의 43.4%이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모, 친척이 26.9%나 되고 2순위에서 인터넷과 친구/선후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26〉전문대학생의 적성을 아는 지 여부

(단위 : %)

구분	2년제	3년제	전체
적성을 알고 있음	58.5	61.7	59.3

〈표 27〉전문대학생의 미래 희망직업에 대하여 아는 정도

(단위 : %)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계
업무내용(하는 일) 및 근무환경	0.0	5.5	38.0	43.8	12.8	100.0
전망 및 보수	0.0	11.7	39.7	38.2	10.4	100.0

〈표 28〉직업 정보 습득원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대학	43.3	13.2	29.3
언론	11.6	7.3	9.6
인터넷	1.9	31.6	15.7
부모/친척	26.9	9.8	18.9
친구/선후배	3.7	25.6	13.9
생활정보지	9.3	4.7	7.2
공공취업기관	2.2	0.9	1.6
사설취업기관	0.4	0.9	0.6
학원	0.0	0.4	0.2
직업훈련기관	0.7	0.4	0.6
취업박람회	0.0	0.9	0.4
기타	0.0	4.3	2.0
계	100	100	100

6. 전문대학생 지도방향

첫째, 전문대학생들 중 예습과 복습에 대하여는 충실한 측면보다는 그렇지 않은 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앞으로 사회는 평생 동안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이다. 그만큼 학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전문대학생들이 공부는 왜 하여야 하며 어떻게 하여야 학습을 잘 하여야 하는지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습과 복습방법을 포함하여 공부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학생지도 차원에서 도입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전문대학생들중 지도교수 면담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경우가 25.5%였으며, 1년에 2번 정도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교수님들이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느라 바쁘겠지만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어느 대학의 경우 학생면담시간을 일정하게 정하여 놓고 있다.

셋째, 전문대학생들은 대학의 도서관, 강의실 등 공간, 도서관의 책과 자료, 학교시설, 컴퓨터 사용 환경 등 물리적 시설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의 시설 투자는 최소한으로 하고 전문대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대학의 학교분위기(social climate)를 개선하는데 더욱 강조를 두어야 하겠다. 좋은 전문대학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교수, 학생, 교직원, 동창, 지역사회 인사 등이 결합하여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이라고 알고 있다.

넷째, 전문대학생들은 전문대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에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에 전문대학이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문대학 당국에서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전체적으로 전문대학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들의 요구

를 조사하여 반영하고 교육과정을 체계적이고 다양화하여야 하고, 공정한 성적관리와 아울러 직업기초능력향상과 학습부진 대학생에 대한 보완 프로그램들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실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2년간 수학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전문대학에서도 교육연구소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 중 못 따라 오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구나 앞으로 재직자나 주부, 중고령층 전문대학생들이 증가하면 이들을 위한 학습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전문대학생의 95%이상이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는데 학교공부나 학습에 활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제 디지털시대와 유비쿼터스 시대이며 전문대학생들은 그 첨단을 걷고 있다고 보인다. 전문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 정도와 경향을 파악하여 이를 학교운영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생들이 거의 100%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당수 시간을 할애하는 싸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클럽을 운영하여(예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0753728#) 관심이 같은 학생들을 묶어주거나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교수님별로 페이퍼를 발행하게 하여 전문대학의 학교운영이나 수업과 관련된 내용, 아니면 외국어 습득, 관련내용을 체계적으로 신문을 발행하듯이 페이퍼를 발행하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될 것이다(예 <http://paper.cyworld.com/1000186029/>)

또한 전문대학이나 학과가 학생들과 친숙한 이미지를 갖기 위하여 타운이라는 것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이제는 블로그시대라고 한다. 웹(web) 로그(log)의 줄임말로,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새로 올리는 글이 맨 위로 올라가는 일지(日誌)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칼럼·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출판·개인방송·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이다.

웹 게시판, 개인 홈페이지, 컴퓨터 기능이 혼합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를 무료 또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지식이 없어도 자신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블로그 페이지만 있으면, 누구나 텍스트 또는 그래픽 방식을 이용해 자신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올릴 수 있고,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사진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이다.

세부 기능은 ① 일기처럼 날짜별로 구성되어 있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손쉽게 기록할 수 있다. ② 완벽한 자료 관리가 가능하다. ③ 독자적인 자료 보관이 가능하고, 저장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④ 일반 커뮤니티의 게시판과 달리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 많은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다. ⑤ 자신이 작성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동조자가 생겨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고, 남이 만든 블로그에 가입할 수도 있다. ⑥ 채팅이 가능하며, 특히 채팅한 내용들이 날짜별로 블로그 페이지에 기록된다. ⑦

웹 브라우저 상에서 실시간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갈수록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술적·상업적인 제약 없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사이트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기존의 언론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언론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천만개 이상의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한 흔적을 차곡차곡 기록을 할 수 있어 차후에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구직자의 블로그만 보면 그 사람의 준비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블로그가 없으면 취직이 안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로 블로그에 대하여 대학당국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여섯째, 전문대학생들이 독서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은 편이었다. 전문대학생들이 4년제 대학생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려면 사회의 변화에 대한 나름대로 시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독서를 더욱 많이 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다. 이 분야에서도 전문대학에서 신경을 써야 하겠다.

앨빈 토플러가 저술한 부의 미래라는 책자에는 미래의 부를 만드는 3가지 심층 기반(deep fundamental)으로 시간, 공간, 지식을 들고 있다.

우선 시간과 관련, 획일화된 시간을 똑같이 지켜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시간과 인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로 인간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며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역동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직업에서도 새로운 속도가 강조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는데 어떤 업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때 경쟁사가 그것을 빨리 도입하면 경쟁에서 지는 것이다. 이 원리가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된다. 속도가 생활의 일부분임을 이해해야 된다. 그에 따라 오늘의 직업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며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 갈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다음은 공간의 확장이다. 세계화가 점차 가속화될 것이고 앞으로 우주공간으로의 진출도 생각할 정도로 공간이 확장된다. 토플러 박사는 2050년이 되면 세계인구의 절반, 세계경제의 40%, 세계 정보기술산업의 절반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이 속한 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심층기반은 지식이다. 지식은 '미래경제의 석유'라고 할 만큼 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지식은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생산되는 지식은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량 기준으로 이런 도서관 100만 채가 보유하는 도서에 담긴 내용과 같을 정도로 엄청나다. 이들 지식 중에 틀린 지식도 있고 '쓰레기와 같은 지식'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제대로 된 지식을 구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앞으로는 직업도 근육보다는 머리를 쓰고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토플러는 이 밖에도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판매나 교환과 같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거나 만족하기 위해 서비스나 어떤 제품 또는 경험을 생산하는 이들을 프로슈머(prosumer)라고 한다. 예를 들면 집에서 과자를 구워 가족과 함께 그 과자를 먹는 것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를 하는 것이다.

한편 토플러 박사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을 제1의 직업, 가사노동이나 봉사활동 같이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제2의 직업, 무인발권기 등의 기계를 이용하는 것처럼 직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제3의 직업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이후 인터넷으로 은행거래를 하는 것 등이다.

토플러 박사는 그러면 이 같은 미래 전망에 근거해 청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을까.

그는 먼저 청년들이 미래를 전망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predict)하는 것은 힘들다. 어떤 것을 예측한다고 하여 그대로 된다는 것은 힘들며 중간에 예상외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보는 자신의 주관이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고의 폭을 넓히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단순한 지식습득보다는 많은 정보를 접하여야 한다.

그 한 방법은 독서다. 토플러 박사는 자신을 '독서 기계'라고 할 정도이며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독서를 한다고 했다. 독서는 책을 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바쳐 연구한 것을 짧은 시간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신문 중독자라 할 정도로 신문을 열심히, 그리고 꼼꼼히 본다고 했다. 신문을 보느라 손끝이 새까매질 정도라고 한다.

토플러 박사는 또 다양한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실제로 공장에서 5년간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실제로 했으며 이 같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독서, 신문열독,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플러 박사는 청년들이 현재는 상자 안에 있지만 상자 바깥을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라고 하였다.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미래의 직업선택과 관련, 지금 당장이 아닌 10년 후를 내다보라는 것이다. 현재의 어떤 직업이 10년 후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능력과 습관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10년 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만큼 전문대학생들도 독서와 이를 통한 세계의 변화에 대한 자신 나름대로의 관점(perspectives)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한 전문대학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전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서 고민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족)와의 갈등, 사귀는 사람(애인)의 문제, 친구관계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자신의 성격, 자신의 외모 등에는 약간의 고민이 있는 편이었으나 나머지 공부, 학교성적문제, 진학, 진로문제, 가정의 경제적 형편, 취업문제에 대하여는 고민이 매우 많은 편이었다. 전문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민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따라야 하겠다.

여덟째, 전문대학생의 성격지도와 관련하여 전문대학에서 MBTI, 애니어그램, DISC 등 성격검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해석을 하여 인성함양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흥미, 적성보다 직업선택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는 성격을 제대로 알고 이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절한 비유가 안 될 것으로 알지만 미국의 버지니아 테크 대학에서의 조승희 살인 행동을 떠올리면 대학생들의 정신적 문제, 성격적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아홉째, 전문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 등에 가지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중도탈락과 휴학 증가에 대하여 대처하여야 하겠다. 전국적으로는 2006년 전문대와 산업대의 학생 중도탈락률은 7.8%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 95년의 전문대의 2.6% 중도탈락률의 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문대학의 휴학생 비율은 35.5%로 1995년의 27.6%에 비해 7%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전문대학생의 휴학시기에 따른 복학생의 유형을 구분하고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1학년 2학기 마치고 휴학하는 학생과 2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각각 다른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 152개 전문대학 협의체인 전문대학교육협의회 11대 회장으로 취임한 한승동 대덕대학 학장은“전문대 재학생의 55%가 저소득층 자녀들인데 일부는 학교버스를 운영하지 않으면 학교에 나오기조차 힘들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만큼 학벌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기저리 특별지원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대학과 전문대 전체 정원(58만 명)의 11%인 6만4000명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 자녀로 뽑을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하여서도 정부에서는 장학금이나 용자를 확대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이것 또한 4년제 대학과 지방대학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지방의 지방대 장학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비수도권 이공계대학 진학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과학영역 3등급 이내인 학생 2000명을 매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2003년부터 매년 4000명에게 이공계 국가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지방대 비율(49%)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공계 국가장학생 전체 수혜인원 중 지방 비율을 65%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125억원 규모의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도 신설된다. 전국 137개 지방 4년제 대학 인문계 열 신입생 및 재학생 2210명(대학 당 평균 16명)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수혜대상 학생은 대학이 정하지만 전체 장학생 중 30%는 저소득층에게 배정해야 한다.

반면 전문대는 지방 전문대에 진학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매년 2000여명에게 등록금의 80%를 지원할 계획에 그치고 있다.

전문대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으나(73.1%) 상당수는 집에서 통학 가능한 전문대학이 없어 집을 떠나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당국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겠다.

열한번째, 전문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고민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2년제 대학생의 81.6%, 3년제 전문대학생의 82.5%, 전체적으로 81.8%가 진로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

다. 취업에 대한 고민의 정도도 78.1%나 되며 미래 어떤 직업을 가질지 결정한 경우가 52.7%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졸업을 목전에 둔 2년제 학생들의 51.4%가 미래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의 진로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대학생들이 자신에 대하여 잘 모르고 직업에 대하여도 비체계적으로 획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어야 하겠다.

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의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합리적인 진로계획 수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현재 몇몇 대학에서 정규강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생, 자신, 직업, 진로, 미래설계를 포함하는 과목을 이수하면서 전문대학생들이 세계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평생에 걸친 경력개발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하겠다.

열두번째, 지구촌화(globalization)사회에서 전문대학생들도 국제화감각을 갖고 외국어를 습득하도록 지원하여야 하겠다. 2008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퇴직하는 일본 시장이나 중국과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여야 하겠다.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2004년 대비 2006년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국내로 들어온 학생)는 전문대학은 약 2배 증가하였는데(즉 19개 전문대학 1,352명에서 23개 대학 2,906명으로 증가) 2006년 아시아 대륙 국가의 유학생 수는 전체의 약 90% 차지하고 있다.

열세번째, 여학생의 취업과 취업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6년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전문대 84.2%로 대학의 67.3%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여성취업률이 남성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전문대졸의 임금 168만원은 고졸(2005년 162만원)과 임금을 차는 거의 없으나, 대졸 이상(251만원)과는 임금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2006년 정규직 취업률은 전문대학(67.1%)이 대학(49.2%) 보다 높다.

7. 결론

전체 고등교육기관중 학교수로 44%, 입학생 대비 39%를 차지하여 고등교육 대중화에 기여한 전문대학이 그 역할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하겠다.

그러나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4년제 대학졸업생에 비하여 보수면에서도 충분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통계청의 도시가구 가계수지 조사(2005)에서도 전문대졸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22만원으로 대졸자(300만원)보다 고졸자(205만원)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 결과 전문대졸업자의 4년제 대학 편입(연간 21천명)과 방송대 편입자 33천명 등 약 5만명 이상이 학위를 취득하려 진학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직업 활동을 한 경우에 전문대학에서 다시 공부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원에 진학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성인들을 위한 계속교육기관으로서 성인을 더 많이 전문대학으로 입학할 유도하여야 하겠다. 35세 이상 대학생 비율이 우리나라는 3.8%에 불과한데 미국은 13.4%, 뉴질랜드는 25.0%나 된다.

전문대학생의 상당수는 전문계고교(과거 실업계 고교)출신이다. 이들 학생들은 이미 실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지만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임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대학생의 기초학습능력증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2002년 수능 평균이 서울간호보건계가 273점이나 지방 공업계는 119점, 예체능계는 113점에 불과하다.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실기위주의 교육보다는 학습방법 등을 보충하여야 하겠다.

2006년에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2억원을 들여 개발한 수학, 영어, 국어 등 5종의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대학 내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인터넷을 활용한 보충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능하면 대학 내 교내 교수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문대학생들의 상당수가 결손가정출신이고 빈곤가정출신임을 고려하여 근로장학제를 확대하고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근로장학제를 2008년까지 200억원으로 증액하고 수도권대학생에게도 혜택을 주려하며, 학자금 대출도 늘리려 하고 있다.

전문대학에서는 영남이공대학의 ICPP(Individual Career Plan Program)등과 같은 학생 개인의 평생에 걸친 경력개발의 기초를 만들어주어야 하겠다.

앞으로 정부는 국립전문대학의 통합과 사립전문대의 4년제 대학과 동일재단으로 통합을 유도하여 2009년까지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2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문대학이 양적인 팽창을 하였다면 이제는 정예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산업계에서 전문대학에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학생지도에서도 대학당국의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고 본다.